

# 공교육 학력 저하 원인 및 실태 분석과 대안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회장

2021. 2



---

발행인 : 지상욱

지은이 :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회장)

편 집 : 조우성 선임연구원

발행일 : 2020년 2월 16일

발행처 : (재)여의도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인 쇄 : 디엔시파크

---

# 발 간 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꼽는 학자가 많습니다.

기회평등한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인적자본으로 뛰어난 국가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의무교육 종료 단계에 있는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교육, 과학 교육, 문제 해결력을 조사하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 평균 비율이 2009년 7%에서 2018년 15%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증가는 단순히 '공부 못하는 학생이 좀 늘었네'라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학력저하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옳드려 자는 등 교실수업의 붕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로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적 발달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

환은 필연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공교육 학력저하의 원인 및 실태 분석과 대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미래를 밝혀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여의도연구원장 지상욱

# 공교육 학력 저하 원인 및 실태 분석과 대안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회장

## 〈요 약〉

- 두뇌의 시대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핵심 역량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융합하는 창의적 지식 역량으로 집중되고 있음. 그러므로 미래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공교육의 수업 또한 이러한 창의·융합적 지식 생산에 필요한 지식기반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활성화 되어야 함.
- 그러나 수업혁신정책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대부분의 참여형 수업들은 창의적 지식 역량의 핵심 요소가 되는 사고력과 탐구력 기반의 지적인 활동 참여나 교과 지식의 핵심 개념과 원리가 반영된 수업 설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행복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단편적인 흥미 위주로 진행되는 즉시성 이벤트성 중심의 신체활동 참여형 수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현장은 ‘지식 없는 참여 수업’들이 활성화 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PISA 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이를 증거함.
- 또한 수업혁신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혁신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도 학생들 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 됨. 그러한 결과 수업혁신을 오히려 행정업무혁신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역효과를 낳게 됨으로써 현재 학교 문화는 수업혁신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업중심의 교단이 아닌 ‘행정업무 지원팀’ 중심이라는 새로운 기형적 행정 문

화가 활성화 되어 있음.

-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수업전문성 신장은 교사 개인의 자율혁신으로 분류되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있는 상태임. 이러한 행정업무중심의 혁신정책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빠르게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학력 저하는 물론 공교육의 경쟁력까지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19 원격수업의 중요 문제점으로 등장한 학력 저하 문제 또한 원격수업으로 등장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존의 수업혁신정책 실패의 연장선에 있음을 진단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의 수업혁신정책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대안 및 개선 과제로는 문제의 처방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기초기본교육 활성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부진아 선점 시스템 개발, 기초학력 보장체제구축, 수업전문가 자격인 수석교사제 활성화, 교육주체들의 미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의식 전환, 교육청의 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 분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사 정원 확충, AI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정책 강화, ,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관리, 취약계층 학생들 교육 인프라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과 연대와 화합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 교육 확대 등을 제안함.





# CONTENTS

I. 학력 저하 실태 / 1

II. 학력 저하 현상의 문제점 및 원인 진단 / 15

III. 대안 및 개선 과제 / 31





# I . 학력 저하 실태

1. 기초학력 미달 비율 지속적 증가 / 3
2. COVID-19 온라인 원격학습 격차 심화 / 13



# 1. 기초학력 미달 비율 지속적 증가

## □ 2018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현황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표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

❖ 전수평가 : ('12) 2.6% → ('13) 3.4% → ('14, '15) 3.9% → ('16) 4.1%

❖ 표집평가

구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7	2.6 (0.17)	7.1 (0.32)	3.2 (0.22)	5.0 (0.47)	9.9 (0.70)	4.1 (0.37)
2018	4.4 (0.26)	11.1 (0.41)	5.3 (0.29)	3.4 (0.35)	10.4 (0.66)	6.2 (0.51)

※ 표집시행에 따라 '17~'18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 )에 표준오차 제시

2019. 3. 28 교육부 보도자료

- 중3의 국어, 수학, 영어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에 비해 각각 1.8%, 4.0%, 2.1% 포인트 상승함
- 고2의 수학, 영어교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각각 0.5%, 2.1% 포인트 상승함
-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로 표집학교의 초등학생, 중 1~2학년, 고1학년 학생은 물론 표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기초학력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7~2019 학업성취도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현황

〈표2〉 2017~2019년 교과별(수학) 성취수준 비율(%)

연도	구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7		84.9 (0.50)	67.6 (0.85)	72.6 (0.88)	75.1 (1.13)	75.8 (1.20)	81.5 (1.04)	2.6 (0.17)	7.1 (0.32)	3.2 (0.22)	5.0 (0.47)	9.9 (0.70)	4.1 (0.37)
'18		81.3 (0.58)	62.3 (0.91)	65.8 (0.96)	81.6 (0.94)	70.4 (1.27)	80.4 (1.03)	4.4 (0.26)	11.1 (0.41)	5.3 (0.29)	3.4 (0.35)	10.4 (0.66)	6.2 (0.51)
'19		<b>82.9</b> (0.54)	<b>61.3</b> (0.94)	<b>72.6</b> (0.82)	<b>77.5</b> (0.90)	<b>65.5</b> (1.24)	<b>78.8</b> (0.98)	<b>4.1</b> (0.28)	<b>11.8</b> (0.44)	<b>3.3</b> (0.24)	<b>4.0</b> (0.40)	<b>9.0</b> (0.59)	<b>3.6</b> (0.35)

(교육부, 2019.11.30.)

- 지난 3년간 중3, 고2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모두 보통 학력이상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특히 고2 수학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17년 75.8%, 2018년 70.4%, 2019년 65.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3년 동안 10.3% 포인트 크게 하락했음
- 중3 수학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2017년 67.6%, 2018년 62.3%, 2019년 61.3%로 3년 새 6.3% 포인트 떨어짐
- 중 3의 국어, 수학, 영어 세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모두 꾸준히 증가함
- 고2의 수학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로 2018년 전년 대비 (10.4%)보다 1.4% 포인트 감소했으나 중3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8년 11.1%에서 2019년 11.8%로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업성취도 구간에서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목표 도달도 20% 미만을 의미하고 보통학력 도달은 성취도 50%이상 수준을 의미함을 볼 때 이 두 급간 사이에 위치한 '기초학력 도달' (20% 이상 50% 미만) 구간은 보통학력 도달이 아닌 미도달의 개념에 해당됨
- 성취도 50% 미만에 해당되는 '기초학력 미도달과 기초학력 도달' 두 수

준은 모두 각 교과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학업성취도 수준을 기초 학력 미도달점이 아닌 보통학력 미도달점으로 놓고 보면 2019 중3의 수학 교과 보통학력 미도달 비율은 11.8%에서 38.8%로 크게 증가하고 고 2 또한 9.0%에서 25.5%로 크게 증가함

- 2015개정교육과정인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2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2018년도에 비해 국어 수학 영어교과 모두 각각 4.1%, 4.9%, 1.6% 감소했음
- 수학교과와 보통학력 미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모든 학습의 기본 도구 교과인 국어교과에서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업혁신정책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현장 수업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불일치되는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역량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역량 평가 관련 수학과 영역 성취율 평균 크게 낮음

〈표3〉 고등학교 수학과 세부 학습영역별 성취율(%)평균

학습영역	성취율(%)
1.연산법칙에 따라 수와 식을 계산하기	71.5
2.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기	61.9
3.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28.3
4. 수학의 여러 내용 사이의 관련성 파악하기	25.1
5. 타교과 및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29.8
6. 자료와 정보의 의미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7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그림1] 고등학교 수학과 세부 학습영역별 전체 평균

- 수학교과와 6개 세부학습영역 중에서 학습영역 3(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학습영역 4(수학의 여러 내용 사이의 관련성 파악하기), 학습영역 5(타 교과 및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상황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의 성취율 평균은 각각 28.3%, 25.1%, 29.8%로 모두 기초학력 미달 구간(20% 미만)에 근접해 있음
- 2015개정교육과정이 중요시 하는 추론하기와 문제해결하기 역량과 연관된 학습영역 3,4,5가 기초학력 미달 구간에 근접할 정도로 성취율 평균이 낮게 나타난 점은 현재 수업 혁신 정책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다양한 참여형 수업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임. 교수학습 상황이 학습자의 적절한 역량을 기르는데 적합한 교육목표와 교수 학습 방법으로 설계되어 교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참고> 학업성취도의 기초학력과 성취도별 정의 및 성취율

① 기초학력

- (기본 개념) 문장과 수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정립하여 공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 가능한 범위로 설정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읽기·쓰기·셈하기와 이와 관련된 교과

(국어·수학)의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 (교육부)

- "학업성취도평가는 준거참조평가로서 학생에게 교과별 성취수준(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으로 제공함. 이때, '우수학력'은 80% 이상, '보통학력'은 50% 이상~80% 미만, '기초학력'은 20% 이상 50% 미만, '기초학력 미달'은 20% 미만을 가리킨다. 백 점을 만점으로 치면 20점 미만일 때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취수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학력	

[성취평가제 성취수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						D	C	B	A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취수준과 성취평가제 성취기준 비교

② 성취도별 정의 및 성취율

성취도	정의	성취율(원점수)
A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음	90% 이상
B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우수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대부분 일반화할 수 있음	90%미만~80%이상
C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음	80%미만~70%이상
D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제한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음	70%미만~60%이상
E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미흡한 수준이며 새로운 상황에 거의 일반화할 수 없음	60%미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ISA 2018 학력 수준 국제 비교

☞ PISA: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연구로서, 참여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읽기, 수학, 과학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교육맥락변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임. 우리나라는 첫 번째 주기인 PISA 2000부터 참여하였으며 PISA 2018에는 37개국의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79개국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ISA 2018 읽기 수학 과학 주요 결과

〈표4〉 PISA 연구주기별 결과 및 영역별 순위와 평균점수 추이

영역		연구 주기 참여국 수 (OECD 회원국 수)	PISA	PISA	PISA	PISA	PISA	PISA	
			2000 43개국 (28개국)	2003 41개국 (30개국)	2006 57개국 (30개국)	2009 75개국 (34개국)	2012 65개국 (34개국)	2015 72개국 (35개국)	2018 79개국 (37개국)
읽기	평균 점수		525	534	556	539	536	517	514
	순위	OECD	6	2	1	1~2	1~2	3~8	2~7
		전체	7	2	1	2~4	3~5	4~9	6~11
수학	평균 점수		547	542	547	546	554	524	526
	순위	OECD	2	2	1~2	1~2	1	1~4	1~4
		전체	3	3	1~4	3~6	3~5	6~9	5~9
과학	평균 점수		552	538	522	538	538	516	519
	순위	OECD	1	3	5~9	2~4	2~4	5~8	3~5
		전체	1	4	7~13	4~7	5~8	9~14	6~10

PISA 2018결과발표, 교육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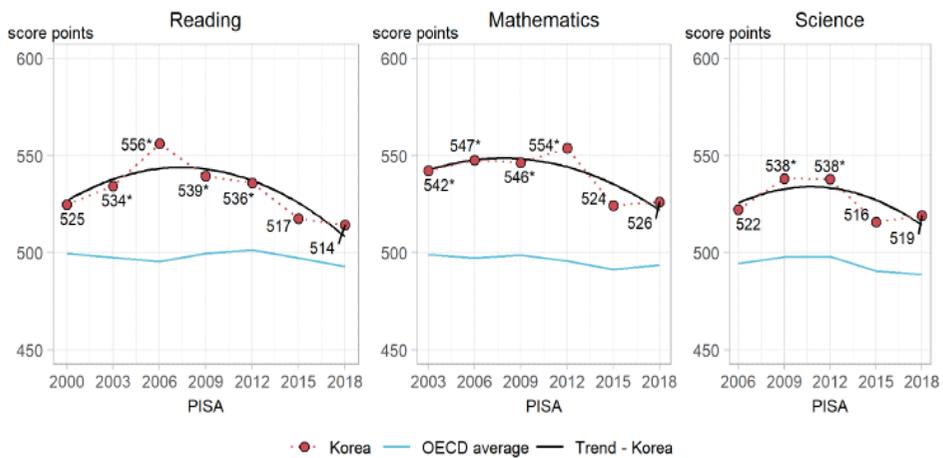
- PISA 2000 첫 주기에서 우리나라는 읽기·수학·과학 영역에서 각각 7위, 3위, 1위를 기록하였으나 PISA 2018에서는 각각 읽기 6~11위, 수학 5~9위, 과학 6~10위의 성취수준을 보이며 학력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과학영역은 PISA 첫 주기 2000년 전체 1위에서 2018년 10위로

하락함

- 순위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평균점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00년의 읽기 영역의 평균점수인 525점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514를 기록 했고 수학영역은 547에서 526으로 19점이 하락, 과학영역은 552에서 519로 33점이 하락하며 선두그룹에서 탈락함. 아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영역별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Performance trends

Figure 2. Trends in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Notes:\*indicates mean-performance estimate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bove or below PISA 2018 estimates for Korea. The blue line indicates the average mean performance across OECD countries with valid data in all PISA assessments. The red dotted line indicates mean performance in Korea. The black line represents a trend line for Korea (line of best fit).  
Source: OECD, PISA 2018 Database, Tables I. B1.10, I. B1.11 and I. B1.12.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_CN\\_KOR.pdf](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_CN_KOR.pdf)

[그림 2] 우리나라의 읽기·수학·과학 평균 점수 변화 추이

〈표 5〉 국가별 읽기·수학·과학 평균 점수 변화량의 평균

국가	읽기		수학		과학	
	PISA 2018 평균 점수	PISA 2000 부터 주기별 평균 점수 변화량의 평균	PISA 2018 평균 점수	PISA 2003 부터 주기별 평균 점수 변화량의 평균	PISA 2018 평균 점수	PISA 2006 부터 주기별 평균 점수 변화량의 평균
OECD 평균	487	0	489	-1	489	-2
B-S-J-Z(중국)	555	m	591	m	590	m
싱가포르	549	6	569	1	551	3
마카오(중국)	525	6	558	6	544	8
홍콩(중국)	524	2	551	0	517	-8
에스토니아	523	6	523	2	530	0
캐나다	520	-2	512	-4	518	-3
핀란드	520	-5	507	-9	522	-11
아일랜드	518	0	500	0	496	-3
대한민국	514	-3	526	-4	519	-3
폴란드	512	5	516	5	511	2
스웨덴	506	-3	502	-2	499	-1
뉴질랜드	506	-4	494	-7	508	-6
미국	505	0	478	-1	502	2
영국	504	2	502	1	505	-2
일본	504	1	527	0	529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 PISA 우리나라의 평균 점수 주기별 변화량의 평균이 읽기, 수학, 과학 세 영역 모두 각각 -3, -4, -3으로 하락했음
- 우리나라와 함께 PISA 2018 전체 10위 권 내 국가 중에서 평균 점수 변화량의 평균이 읽기-5, 수학-9, 과학 -11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핀란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업혁신정책에 반영된 수업과 평가 철학이 핀란드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점에 주목)
- 2000년대 초반 공교육 강국으로 군림했던 핀란드는 2000, 2003, 2006 까지 PISA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나 2012년에 수학, 읽기, 과학 3개 영역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를 기록하며 순위가 대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함. PISA 2018에서는 각각 16위, 7위, 6위를 기록해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함께 전체 순위와 평균 성적 모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핀란드 순위 하락의 원인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으나(기초학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다문화 학생 수 증가등)어떤 변수가 평균 점수 하락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는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음.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 교육계의 혁신 담론이 핀란드 교육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음을 볼 때 두 국가의 평균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를 맥락과 관련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혁신 교육 정책과 유사한 일본이 2016년에 공식적으로 포기한 정책인 '유토리 교육'과 1999~2012년까지 역량중심-학생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다 2013년에 '지식중심과 교사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선회한 영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함

☞ 유토리 교육(일본)

- 유토리란 '여유'란 뜻으로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일본의 인성교육중심의 전인적인간양성을 위한 종합 교육 정책이었음
-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에서 시행된 교육 정책으로 학생의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자율성을 존중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자 바람직한 의도로 출발된 교육임

☞ 2016년 일본 정부가 유토리 교육을 공식 포기한 이유

-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명분으로 공부 습관을 길러주지 않음
- 기초지식 교육 부실과 함께 유토리 교육의 가장 핵심인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력' 신장 교육에 실패. 교육 양극화는 심화
- 국제학력 평가에서 일본 학생들의 학력 대폭 하락함
- 유토리 세대 기업문화의 적응력 낮음

☞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는 2016년에 유토리 교육의 실패를 인정하고 유토리 교육으로 줄었던 감축된 수업시수를 늘림으로써 학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으로 다시 선회함. 탈 유토리 교육 실시 이후로 학력 저하 현상이 완화되면서 PISA 순위 향상과 함께 PISA 쇼크에서 헤어나오긴 했으나 학력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나타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 시사점 :

- ① 현재 우리의 혁신 교육 철학과 유사한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는 유토리 교육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한 이유, 현재 우리의 학생중심교육과정과 유사한 역량중심,

학생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한 영국이 지식 중심, 교사주도 교육정책으로 선회한 이유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재 우리 교육 정책의 방향성 정립 필요. 어떤 교육정책이든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되는 문제 해결 시각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함

② 특히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최고의 핵심자본으로 등극한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지식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함

- PISA 2018 성취도와 국내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수업 방법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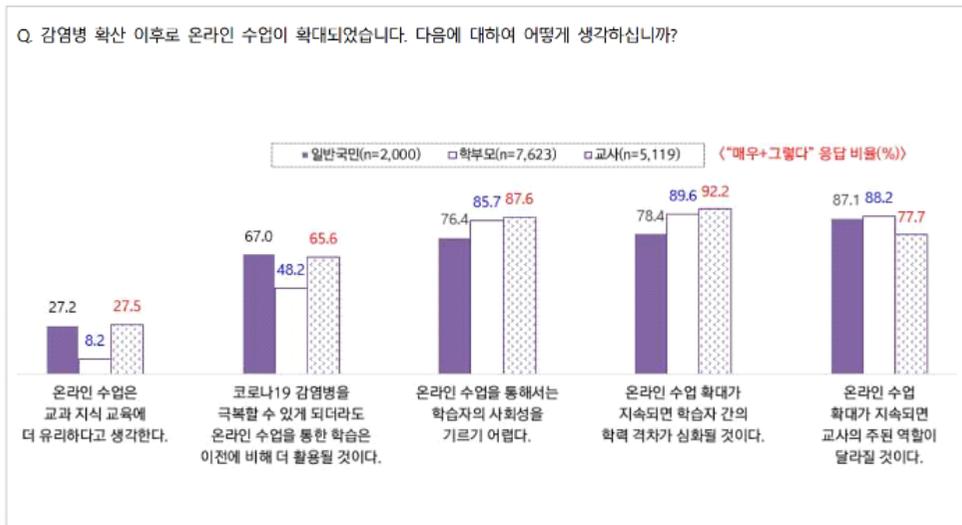
## 2. COVID-19 온라인 원격학습 격차 심화

### □ 교육 약자의 학습 결손 심화

#### ○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 심화

- \*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저소득 맞벌이, 특수아동 대상, 학습 흥미도 낮은 학생, 기초학력 미달, 자기주도적 학습법 낮은 대상 학생들
- 학교 수업의 중위권이 사라지면서 학력 양극화는 심화됨
- 자기주도적 학습관 형성이 길러지지 않는 학생일수록 중간층에서 하위 수준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짐

#### ○ 온라인 수업 확대가 지속되면 학습자 간 학력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질문에 교사 92.2%가 동의. 학부모(89.6%), 일반 국민(78.4%)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2020.11.10.)



(사진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그림 3] 온라인 수업 실태 조사

#### ○ 전국 초중고교 교사 1933명에게 설문. 교사 10명 중 8명꼴(80.4%)로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 그 중 2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국교총, 동아일보 2020.7.20.)



## II. 학력 저하 현상의 문제점 및 원인 진단

1. 수업혁신 정책 실패 / 15
2.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해체와 몰락 / 19
3. 교육과정 중심보다는 슬로건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업현장 / 22



## 1. 수업혁신 정책 실패

- 행정업무중심으로 활성화된 비정상적인 수업혁신정책
  - 학교 문화 혁신이 관리자를 주요 타겟으로 한 수직적 관료문화 개선과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업무혁신 중심으로만 강력하게 추진됨
  - 교단의 혁신정책이 교수학습 전문영역이 아닌 외적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외형중심 혁신에 치중하다 보니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혁신 전보다 오히려 더 해체되고 교사의 행정업무 전문성이 길러지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수업혁신 정책이 구현됨
  - 정작 내실을 기해야 하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은 교사 개인의 자율혁신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서 사실상 혁신 정책에서 제외됨
  - 바람직한 리더로서 가져야 할 관리자들과의 책무와 역할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관리자 대상의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한 혁신만 증점적으로 진행됨. 장학을 활성화해야 할 리더로서 가져야 할 관리자의 책임감과 역할까지도 모두 붕괴시킴으로써 무능력할 수록 최고의 관리자로 등극된다는 '역할 없는 관리자 시대'라는 비정상적인 학교 문화를 활성화 시킴
-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단위 학교의 수업혁신 시스템 부재
  - 슬로건만 존재하고 정책 시스템은 없는 실체 없는 자율기반 수업 혁신
  -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단위학교의 업무혁신 시스템 구축은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추진하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의 본질이 되는 교사 정체성과 관련된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교사 개인의 자율성 영역으로 분류 하며 혁신정책에서 배제
  - 단위학교의 수업혁신을 이끌 전문적인 핵심동력과 시스템 부재로 행정업무 경감으로 확보된 교사의 추가 시간들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학교 문화는 교무행정과 교수연구 지원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

○ 시혜적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한 교육청의 수업혁신 정책

-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정확한 개념 정립 필요
- 교육행정기관이 교사 전문성 신장의 개념을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국가 경쟁력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사 개인의 소비적 복지와 정책의 조건적 시혜의 개념으로 접근함
- 혁신교육의 슬로건인 ‘행복교육’은 교육주체들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 행복의 개념 보다는 교육과 학습의 원리는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즉시성 중심의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소비론적 행복교육으로 활성화 됨

## 2.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해체와 몰락

- 교사의 ‘수업 공개’ 폐지 또는 ‘축소’ 정책과 함께 수업 전문성과 정체성은 담보되지 않는 주관적 견해의 ‘수업 공유’와 ‘수업 나눔’ 정책들이 우후 죽순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함
  - 개방성이 전제된 교사의 강력한 수업 전문성 신장 방법 중 하나였던 ‘수업 공개’ 문화는 교사에게 공개 부담을 준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에 의해 폐지 또는 축소됨
  - ‘수업 공개’ 용어 대신 전문성 신장이 담보되지 않는 ‘수업 나눔’ 과 ‘수업 공유’라는 정책 용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개방성에 근거해 가장 적극적 방법으로 신장시킬 수 있었던 수업 공개 문화는 서서히 제거되었음
  - 수업 공개 폐지로 교실 수업 개방을 꺼려하는 폐쇄적 교단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됨으로써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현재 ‘깜깜이 전문성’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 수업은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업 나눔’과 ‘수업 공유’ 정책은 ‘수업의 질은 담보되지 않는 성장 없는 수업혁신’이나 자신의 수업 경험 이야기만을 나누는 ‘수업 이야기 혁신’ 등으로 활성화되면서 수업 전문성 신장과는 거리가 먼 기형적인 수업 혁신 문화가 활성화됨
    - ※ 축구선수의 역량은 축구를 직접 하는 필드 상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필드를 떠나 축구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토크쇼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실 수업의 역량 또한 실존하는 수업으로서 수업시간이라는 필드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수업을 토크쇼로 나눔 한다고 전문성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임
- 수업 연구와 관련된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연구대회 폐지 또는 축소
  -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모든 대회와 관련된 예산 축소 또는 폐지
    - ※ 행정업무혁신정책은 교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쟁적으로 활성화시킴
  - ‘수업 공개’ 폐지와 함께 진행된 ‘수업 연구 대회 폐지’ 정책은 교수 학

습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교사 개인의 성장 욕구를 모두 제거해버림으로써 ‘수업 컨설팅’ 문화까지를 교단에서 자연스럽게 제거 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킴

- 교사 전문성의 핵심인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관점에서 대회가 갖는 장단점을 분석해 장점은 장양하고 단점은 수정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연구 대회 전체를 폐지한 것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붕괴를 가속화 시킨 요인이 됨
- 수업 연구 대회 폐지는 ‘경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영향력과 인간의 기본적 본능인 성장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편협적 시각의 정책임. ‘경쟁’과 ‘협력’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핵심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체’와 ‘협력’의 가치만을 교사 문화에 일방적 획일적으로 주입시키고자 함. 공동체성을 앞세운 균형 감각 부재의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은 학예를 장려해야 하는 교단 문화 증진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교사 전문성의 붕괴와 몰락, 그리고 그 최종 피해는 학생의 학력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남

#### ○ 개인 자율성에 의지한 수업 컨설팅 정책 한계

- 수업 전문성이 교사가 공적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수 역량으로서의 공적 개념으로 접근되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은 방향과는 달리 교사 개인의 사적 영역인 자율 역량의 개념으로 활성화 시켰음
- 각시도교육청의 수업 혁신 연대기를 살펴보면 혁신이 진행될수록 수업 공개 문화는 축소 또는 폐지 경향을 보이면서 이러한 문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 전문가들로부터 수업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적극적 요인으로 작용되었음
- 교사 자율성을 신장 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문성은 부재된 상태에서 교사 개인 성향인 자율성에만 의지한 수업 컨설팅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결과적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업혁신’ 정책은 ‘수업 대회 폐지’-‘수업 공개 폐지’-‘수업 컨설팅 축소’로 단계적으로 이어

지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는 축소 시키거나 제거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교사 전문성의 핵심인 수업의 질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수업 전문성을 해체 시킨 수업 혁신 정책은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학생의 학력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옴.

### 3. 교육과정 중심보다는 슬로건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업현장

□ 초등 기초기본교육 붕괴 초래한 위계성 부재의 창의·융합 수업

○ 민능 슬로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활성화로 초중등교육의 기초기본 교육 몰락

-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발달단계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목표로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있음

#### 〈참고〉 초중고등학교 교육목표

- ①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둠 (**기초교육**)
- ②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둠 (**기본교육**)
- ③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둠 (**적성과 소질 중심 교육**)

#### 초중고등학교 교육목표 (2015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수업은 기초교육, 중학교는 기본교육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 고등학교는 지식과 경험을 융합한 창의융합형 수업으로 학교급별의 위계에 걸맞게 각각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초등의 경우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현재 유행하는 대부분의 학생참여형 수업방법은 학습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길러주고, 기본학습관 형성을 위한 반복과 훈련의 과정을 중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돕는 지난한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학생참여형 수업방법들이 아님. 오히려 배움이 이미 완성된 상태를 증거 하는, 결과 중심의 성인교육에게 적합한 참여형 수업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식의 위계가 강조되는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기초 기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채 단순 흥미 중심의 참여형 수업문화에 익숙해진 초등학생들은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을 볼 때 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초등 교육은 중등교육과 성인기 평생 학습의 질까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교육 단계이므로 초등의 기초기본교육을 회복하고 활성화 시키는 수업혁신정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봄
- 역량 중심교육과정 운영에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은 참여나 활동 그 자체가 수업목표가 아니므로 안정적인 기본학습관 형성과 교과외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참여 수업으로서의 수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슬로건과 선악 프레임에 갇힌 이분법적 사고의 수업 혁신 정책들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는 흑백 논리 중심의 수업 혁신 슬로건들〉

선(善)또는 귀(貴)한 수업	악(惡) 또는 천(賤)한 수업
- 학생 주도 수업은 선이고	교사 주도 수업은 악이다
- 역량교육 수업은 선이고	지식 중심 수업은 악이다
- 배움 중심 수업은 선이고	가르침 중심 수업은 악이다
- 과정 중심 평가는 선이고	결과 중심 평가는 악이다
- 수행평가는 선이고	지필 평가는 악이다
- 다양성은 선이고	전문성 중심의 획일성은 악이다 (고도화된 전문성은 일정정도의 획일화 경향을 띤)
- 자율성은 선이고	자율성을 길러주는 것은 악이다
- 협력은 선이고	경쟁은 악이다

- 창의성은 선이고	모방은 악이다
- 다름의 가치는 선이고	같은의 가치는 악이다
- 을(乙) 질은 선이고	갑(甲)질은 악이다
- 학부모와 학생 인권은 선이고	교원 인권은 악이다
- 공동체 문화는 선이고	교사의 개인, 개별화 문화는 악이다
- 수업 나눔과 수업 공유는 선이고	교실 수업 공개는 악이다
- 교과서 밖의 지식은 선이고	교과서 안의 지식은 악이다.
- 주제 중심 교육과정은 선이고	교과서 중심 교육과정은 악이다
- 내용은 선이고	형식은 악이다
- 창의성은 선이고	암기 훈련 반복은 악이다
- 자라나게 해주는 수업은 선이고	심어주는 수업은 악이다
- 신체 참여 활동 중심 수업은 선이고	뇌기반 중심의 지적인 탐구 활동은 악이다
- 참여형 수업은 선이고	강의 전달 수업은 악이다
-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선이고	알게 해 주는 교육은 악이다
- 삶 중심 수업은 선이고	교과의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 수업은 악이다
- 흥미 중심은 선이고	지식 탐구 수업은 악이다
- 수업 컨설팅은 선이고	수업 장학은 악이다

-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는 교사의 흑백논리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는 지식을 대하는 통합적 균형적 관점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됨. 이는 학생의 학습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 학생의 학업성취도 하락과 관련된 수업 혁신 정책 오개념 분석

-교육과정 기반에 의거 초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중심으로-

- ※ 오개념에 대한 본 주제는 본 연구자가 수업 혁신 정책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교육과정 기반에 의거 실시한 컨설팅 경험과 교수 학습전문가 집단인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의 16개 시도회장단 협조를 얻어 전국의 수업 컨설팅 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참여형 수업 활성화로 반쪽 짜리 '지식'으로 전락한 현장 오개념

- 지식의 종류 중 선언적, 명제적 지식만 지식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은 지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강의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수업이나 참여형 수업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역량을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생각함
- 서로 다른 개념인 '지식'과 '암기'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 중 '지식' 목표만 지식이고 '기능'과 '태도'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함
- 참여형 수업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신체활동기반의 학습활동이므로 뇌기반 학습의 지식 탐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함
-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적 슬로건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개념은 교과서 지식과는 다른 개념으로서의 '지식정보'라고 생각함
- 교과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지식 중심 수업이지만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 중심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함
-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토의토론, PBL 등과 같은 참여형 학습 방법들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습득하기 위한 수업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함
- 학생참여형 수업들의 목표는 지식의 암기와 습득을 위한 지식 탐구 중심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함
-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주제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 분석 및 해석:

-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 전체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 참여형 수업들은 지식을 탐구하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임을 볼 때 평가 또한 지식 습득의 정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 평가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인지(認知)유형을 달리해서 잴 수는 있지만 모든 평가는 학습자의 지식 습득의 정도를 잰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형 수업이라 일컫는 혁신수업들이 ‘지식보다는~’,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식의 슬로건들로 지식을 폄하하는 반지식주의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관점에서 지식을 대하는 교사들의 이러한 편협한 시각을 분석해보면 참여형 수업과 학생들의 학력저하 사이에는 맥락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음

### ○ 2015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과 기능에 대한 오개념

- 역량의 개념을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역량(competencies)과 행동(action)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정의하지 못하고 교수학습에서 두 개념을 혼재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식 습득은 없는 상태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수업일수록 역량 중심 수업이라는 오개념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수업을 통해 길러지는 교과 역량의 개념을 학생 참여로만 인식하고 있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역량신장을 증거해 줄 핵심 기능들(skills)이 사고력과 탐구력 기능임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음
- 수업을 통해 학습 내용으로 가르쳐야 할 기능 유형에는 사고 및 탐구 기능, 사회 정서기능, 훈련 연습 기능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수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수업에서 기능(skill)의 개념이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와 탐구 기능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동시에 학습의 결과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중의적 개념으로서의 기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음

- 교과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모든 참여형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 참여형 수업 오개념

- 학생 참여형 수업이란 지식과 기능의 깊이 있는 탐구와 사고가 가능한 수업을 일컫음 (교육부,2015)

- 2015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 슬로건인 학생 참여형 수업은 지식과 기능의 깊이 있는 탐구와 사고가 가능한 수업유형이 아닌 학생들의 신체활동참여를 중심으로 단순히 재미있게 열심히 활동하는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과에 대한 기초개념이나 원리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수업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수업의 목적이 아닌 참여의 목적이 지식 습득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음
- 생각하는 수업이 아닌 신체가 움직이는 수업을 참여형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과정중심평가 오개념

- 2015개정교육과정의 평가 슬로건인 과정중심평가는 지식이 아닌 수행의 과정을 재야 하는 평가방법이므로 교과에 대한 핵심개념과 원리인 교과에 대한 지식 습득의 정도를 재는 지필평가는 과정중심평가 철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과정중심평가는 결과중심 평가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중의 평가이기 때문에 성취기준에 근거해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총괄평가 실시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학습을 위한 평가'의 개념이므로 교사는 학생이 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도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과정중심평가 슬로건은 교사로 하여금 평가를 교육과정상의 독립된 존재로서가 아닌 일개 교수학습의 보조 도구로 생각되게 함으로써 평가 고유의 독립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형적인 과정중심평가 문화를 출현시킴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의 개념과 학습을 위한 피드백으로서의 학습과 평가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평가 문화가 출현됨)
- 과정중심평가는 배움의 과정을 재는 것이 목적이지만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 개선과 교사의 교수학습 질 개선에 목적이 있음을 대부분의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과정중심평가'라는 슬로건 중심의 정책 용어가 갖는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대부분의 교사들을 '과정'이란 특정 용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기본 유형에 해당되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개념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해체된 계기가 됨
- 학습에 대한 최종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중심평가의 해체로 학생은 자신의 학업성취 도달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 받거나 안내 받지 못함으로써 학력 신장에 필요한 적절한 공교육의 제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됨
- 대부분의 교사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지식의 깊이를 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두 평가 방법은 모두 지식의 습득 정도를 재는 평가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지필평가: 지식을 알게 재는 평가. 수행평가: 지식을 깊게 재는 평가방법)

- 과정중심평가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세부 정책안 중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평가 혁신 정책임.
- 과정중심평가가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평가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목적과 취지가 이상적이었으나 학습자의 역

량, 학문의 지식의 구조, 빅아이디어, 핵심개념과 원리 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복잡한 특징을 구현해내는 평가로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정책이었음

- 2015개정교육과정이 교육과정 결정의 3대 요소인 사회, 학습자, 교과 중에서 학습자와 교과를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과정임을 볼 때 수행과정만을 중시하는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정책은 특히 초등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임.
- 특히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 해당되는 초등의 경우 교과의 기초 지식과 기본학습관 형성등 기능 숙달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수행평가와 동시에 결과중심의 지필평가 또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강조 되었어야 함
- 성취기준의 지식 유형에 따라 지식의 내면화를 위한 초등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유형으로 나뉘어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필평가를 평가의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한 과정중심평가 정책은 학생들의 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봄

○ 원격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오개념

- 2015개정교육과정 성격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학생중심 교육과정(교육부,2015)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참여형 수업방법들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의 기반이 되는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수업방법들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교육과정 총론 제2장 교수학습 부분 8항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수업혁신정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수업들은 미래의 평생학습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 역량인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수업유형들은 전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자기주도적 학습법은 교사가 길러주어야 할 학습법이라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길러야 할 학습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

- 원격수업 효과가 낮은 이유는 단순히 원격학습운영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보다는 대면 수업에서 흥미와 참여 활동만을 강조하며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가르치지 않는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방법의 부재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미래의 평생학습 사회에서 학생을 배움의 주인으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배움의 주체로서 가져야 할 학습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없는 참여형 수업문화는 학습의 주인으로서 자신 스스로 배움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기형적인 학생중심교육과정운영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

### III. 대안 및 개선 과제

1. 기초 기본 교육 강화 / 33
2. 기초학력 보장 및 협력 책임제 운영 / 34
3. 수업전문가 자격, 수석교사제 활성화 / 35
4. 수업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 / 38
5.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지원 강화 / 45



## 1. 기초 기본 교육 강화

- 슬로건과 혁신 일변도의 정책 용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정책 활성화
  - 시대변화라는 이름으로 단기간에 활성화되고 사라지는 정책 용어 중심(학생참여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등)의 트렌드 교육은 교단의 불안정성 지수를 상승 시킴
  - '학습'과 '학력'은 안정적인 교단 문화에서 효과적으로 신장 될 수 있음
  - 공교육의 위기와 학력 저하는 창의성 교육의 실패가 아닌 기초교육의 실패에서 기인함. 시대용어와 슬로건 중심의 혁신보다는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변하지 않을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 필요
  
- 추상적 교육목표보다 학교급별에 적합한 실질적인 교육목표 추구
  - 기초기본교육을 위한 학교급별에 따른 선택과 집중 교육체제 필요
    - ※ 3단계 교육체제: 기초교육(초등)- 이해교육(중등)- 창의성 교육(고등)
    - ※ 초등부터 대학까지 창의성 교육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현 교육 정책 개선 시급
  - 수행성(역량) 교육에 앞서 핵심 개념에 기반한 지식 습득 교육 강화
  
- 교육과정 조정 및 사회적 합의
  - 지식의 위계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난이도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초 기본 교육 개념 재정립 필요
  - 지능정보 시대의 핵심인 수학은 수학 포기자 예방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학의 기초학력의 수준과 범위, 목표 등을 새롭게 설정

## 2. 기초학력 보장 및 협력 책임제 운영

### ○ 책임, 연대와 협력체제구축

- 지자체-가정- 학교-교육청의 협력체제 구축
- 학습 종합 클리닉센터, 두드림 학교, 학력 신장 온라인 사이트 지속적 운영
- 1학년 한글 교육 책임제 등 학년군별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 ○ 기초학력 보장 교원 역량 강화

- 전문 인력풀 육성 및 학력신장 컨설팅단 운영(학생성장지원팀)

### ○ AI 활용 학습 부진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 AI와 최첨단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부진아로 전락될 수 있는 학생을 사전에 선점해서 학력 저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학습 부진 백신 시스템 개발과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교육정책 필요
  - ※ 학력 저하 후에 학력 신장을 처방하는 소극적 정책들은 담론화 되어있으나 학습 부진을 미리 진단해서 선점적으로 예방하는 학습 부진 백신 차원의 적극적 교육정책은 현재 전무한 상태임(학부모 동의 문제 해결)
- 조기 진단과 함께 처방을 위한 AI활용 학습 부진, 진단-실행-평가-환류를 통한 종합적인 개인 학력 관리 시스템 구축

### ○ 초등 담임 연임제 시범 운영(학년군별 성취기준 기준)

- 현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1년 단위가 아닌 2년 단위의 학년군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와 연동된 초등 담임 연임제 시범 운영 제안

### 3. 수업전문가 자격, 수석교사제 활성화

#### ○ 기초학력 정책, 처방에서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학습 부진은 처방보다 예방과 조기 개입이 효과적
  - 예방 정책의 핵심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 해당
    -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함. 학습 부진아 예방의 가장 적극적 정책은 교사의 교실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전문성 신장임
    - 수업 전문성 신장과 일체화되는 교원 인사제도 활성화가 급선무
    - 전문성의 위계에 따른 교사 직급의 다층화 필요
    - (교수전문성경로 : 예비수업교사(2급)→1급→선임교사(신설)→수석교사)
- ※ 단순 경력이 전문성을 담보해주는 시대는 지났음. 교직생애 주기별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 갱신 제도 도입 필요

#### ○ 수석교사 선발 확대 및 내실화

- 에듀테크 미래사회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학습전문가로서의 수석교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짐
  - ※ 원격수업의 온라인 매체 활용 기술이 잘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기계를 잘 다룬 기술자와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와는 전문성의 유형 자체가 다름)
  -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수업은 객관적 전문성에 의해 핵심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과학적 기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미래 교육에서 교사의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상위 자격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임.
  - 수석교사로 자아실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사 제도를 활성화 놓으면 그 과정 자체가 교사 자신의 수업 전문성 개발과 일체화되는 과정이므로 수업 혁신을 지금처럼 공허한 구호로 외칠 필요가 없음.
  -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의 관리행정우위 학교 문화를 학교의 본업인 교수연구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핵심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음

- 1교 1수석교사 배치 또는 적정 수준 정원 확보
  - 현재 수석교사는 전체 교원의 0.32%에 불과함.
  - 자격제도로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교 1수석교사 배치 또는 제도의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정원 확보 필요
  -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자신의 가치와 자아를 학교 교육의 본질인 교수학습 전문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입한 수업친화적 미래형 교원 자격임.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현 정권의 교원 전문성 신장 정책은 교수연구 중심이 아닌 여전히 관리행정 중심의 교장공모제 활성화임)
  - 교원의 본업이 가르치는 일임을 볼 때 자아실현 제도인 인사제도 또한 본업인 가르치는 일과 일체화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서 상식이자 기본임.
  -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인사제도는 교사의 비본업인 관리행정업무가 가르치는 본업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비정상적 구조의 인사제도임을 볼 때 교수연구와 관리행정 간의 인사제도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 수석교사제 내실화를 위한 교원 자격 이원화 체제 구축

-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단위 학교 교육력 제고는 교사 개인의 수업 전문성이 담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임(추상적 개념인 ‘단위 학교의 교육력 강화’ 정책 보다는 ‘교원 개인의 교육력 강화’정책이 실질적 정책임)
  -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일체화되는 자격 활성화 정책이나 수업 혁신을 이끌 핵심동력으로서의 인적자원은 부채된 상태에서 자율성 기반의 수업 혁신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 ※ 시도교육청들이 추진하는 업무혁신과 수업혁신 정책을 단순 비교해보더라도 교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수업혁신과는 달리 행정업무혁신 정책은 교사와 관리자 모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며 교육청 주도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함.(수업 혁신 정책은 인센티브 없는 자율성 정책으로 시행하고 업무혁신 정책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인센티브 중심의 교육청 주도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음)
-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교원자격체제에 맞는 교무행정과 교수연구에 따른 직무이원화 체제 구축 필요

- 학교 문화는 교원의 위계가 아닌 각각의 고유 자격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상호협력 문화 활성화

## 4. 수업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

### ○ 미래 교육에서의 ‘지식’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재발견

- 지능정보 시대의 핵심 요소인 ‘지식의 가치와 의미’ 재발견 시급
- 지식 격차 해소의 중요성 확산
- 교육주체들간의 ‘지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적 정의 공유와 확산

#### ☞ 지식 :

지식(知識)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최근에는 한 사람뿐 아니라 집단의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도 지식이라고 부른다.

넓은 뜻으로는 어떤 사물(事物)에 관하여 명료한 의식을 지니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 알려진 사물의 뜻이 되기도 하며,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인 사실적·경험적 인식의 뜻이다. 좁은 의미, 즉 엄밀한 의미로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확실한 의식을 지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 다른 것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참된 판단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지식은 역설이나 상상과는 달리 보편 타당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고(思考)의 작용이 결들인다.

기술 정보는 필요에 맞게 가공되지 않은 것이고 기술 지식은 필요에 맞게 가공된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주어진 문제의 시간과 공간에 적합한 해결책으로 활용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지식이라 한다. - 위키백과 -

☞역량 : 지식과 역량은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닌 융합과 보완적 관계

에릭 허시(Hirsch, E.D)- ‘지식 없이는 기술도 가질 수 없다. 기술은 역량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식 격차를 해소하면 기술격차와 사회경제적 격차마저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 지식정보화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최고의 핵심 자본은 지식과 정보로 요약됨
- 그러나 수업 혁신 정책으로 활성화된 현재의 참여형 수업들은 미래교육과 역행하는 반지식주의(반학력 친활동)수업 문화를 대거 양산해내고 있음. 반지식주의 수업 문화는 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됨
- ※ 수업에서의 모든 교수학습 활동은 지식을 가르치고 배움. 학업성취도 또한 지식의 습득 정도를 재는 것임. 다만 지식의 종류에 따라 인지의 유형만 달라질 뿐임(개념적 지식, 조건적 지식, 절차적 지식). 그러므로 모든 수업과 평가는 시대 변화와 무관하게 ‘지식’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지식’의 개념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가 급선무
- PISA ‘핵심 영역’인 읽기, 수학, 과학은 물론이고 2018 ‘혁신적 영역’인 ‘글로벌 역량’ 까지도 3개 차원의 지식과 인지적 기능을 측정하는 것임. 추상적 개념의 ‘역량’을 측정한 것이 아님

〈글로벌 역량 인지적 평가의 차원별 문항 수〉

차원	개별 문항수
1. 지역적, 세계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	37
2.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18
3.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
4. 집단의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14

-교육부, PISA 2018 글로벌 역량 결과 발표-

○ 수업 방법과 내용의 패러다임 전환

- 지식 폭발의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배움을 위해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배우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내야 함’
- 학습 내용은 수단으로 학습 방법은 목표로, 기존의 수업 내용과 방법을 뒤집는 수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균형 있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 타인의 지식(암기, 연습)의 양과 변환된 나의 지식(생각)의 양의 균형

- 생각한 것(선언적 지식)과 생각하는 방법(절차적/ 조건적 지식)의 균형
- 배우는 것(學)과 익히는 것(習)의 균형
- **학습을 위해 과학의 객관적 원리가 반영된 검증된 수업 운영 하기**
  - ※ 참여중심 수업에서 학습자의 삶이 반영된 수업의 의미란,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지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의 개념이 지 단순히 교실 밖의 삶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 공간만 이동된 채 여전히 삶을 삶으로 배우도록 하는 수업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님

### ○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강화

- 미래사회 학습 자치 시대에서 학생이 필수로 길러야 할 최고 역량임
-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콘텐츠 개발
- 학습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있는 태도 길러주기
-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길러야 할 학습 방법이 아니라 교사가 의도적으로 가르쳐 내야 할 개념임을 인식해야 함**
  - ※ 성인학습의 자기주도적학습 개념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됨
- '배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과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대면, 비대면의 모든 배움에서 학생의 학습 성패를 좌우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미래 교육에서 책임 있게 길러주어야 할 최고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음

### ○ 수업 경연 대회와 온오프라인 수업 컨설팅 시스템 구축

- 교사 집단의 수업 전문성 붕괴는 학생의 학습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학생의 학력신장의 한 방법임**
- 경쟁의 긍정적 요소를 교사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한 교실 수업 개선 연구 대회 활성화 필요
- 교사의 수업 자신감 회복과 교실 수업 개방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 필요(자발성 요인만으로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임)
- **'학습을 뇌기반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접근하는 수업 연구회 문화 활성화 필요**

- 온 오프라인 수업 컨설팅 지원 센터 구축

- ※ 학생의 학력과 관련된 현 수업혁신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시스템을 대부분 해체시키거나 붕괴시킴으로서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수업혁신 전보다 하향 시킨점에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수년간의 수업컨설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행정업무혁신에 집중하기 위해 수업연구대회, 컨설팅지원센터, 장학지도, 수업 공개등 교사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들은 대폭 간소화 시키고 대안도 없이 우선 해체 시킴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교사 개인의 사적인 자율성의 몫으로 규정해버렸다는 것임).
- ※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하향 심화시킨 수업혁신정책은 ‘행정업무 혁신 정책의 성공은 곧 수업 혁신 성공까지를 덩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안이한 생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교육’사업과 ‘교육 복지’사업 개념 구분 필요

- ‘교육’ 과 ‘학예’ 사무의 관장이 본업인 교육감 본연의 사무에 대한 인식 제고

☞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교육’과 ‘학예’의 개념

☞ 교육(敎育, 영어: education) 또는 가르침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또는, 교육은 피교육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 학예

1. 학문과 예능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문장과 기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네이버 국어사전-

- 시도교육청의 고유 사무인 교육과 학예를 장려하는 정책 활성화 시급
- 미래 교육의 화두가 ‘교육’ ‘수업’ ‘교육 주체’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활성화 되기 보다는 공간혁신, 디지털 환경, 교육복지 안전망 등 시설 구축과 물리적 환경 기반 조성 등 ‘즉시 성과 결과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만 집중되고 있음.
- 교육행정기관들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순수한 교육 정책을 소외 시킬 수록 역설이게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교육복지 사업은 활성화됨. ‘교육 정책’과 ‘교육 복지 정책’의 바람직한 개념 정립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교육 복지 정책의 방향은 ‘복지 중심의 교육 사업’이 아닌 ‘교육 중심의 복지 사업’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교육복지’ 사업으로 편중되어있는 현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감 본업의 사무인 ‘교육과 학예’를 장려하도록 하는 적극적 대안과 함께 교육과 복지가 균형 있게 운영되는 교육 본연의 사무인 정책 개발이 시급함

- 교육 정책의 관점을 즉시성과 현재 중심 관점에서 처방되는 ‘복지 정책’의 시각보다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과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교육 정책 추진이 요구됨(시도교육청의 정책은 복지 행정이 아닌 교육 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전문가 집단으로서 수업 문화 균형 잡기

- ‘수업 전문성’과 ‘수업 방법 다양성’ 개념 정립과 균형 잡기
- 참여형 수업의 질 제고

- ‘배움 없는 단순 참여 수업 방법의 활성화’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와 관계 깊은 교사 수업 전문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
  - ‘수업 혁신’의 바람직한 개념 정립
    - ‘혁신 학교’와 ‘일반 학교’란 개념은 현장에 없는 학교다. 모든 학교 현장에는 교육의 본질인 가치 추구하고 함께 학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교사 자신의 가르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고자 노력하는 ‘혁신 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가 존재 할 뿐임
    - 혁신 학교와 일반 학교라는 용어 구분은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되는 정치 프레임 용어이지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가치 프레임의 용어는 결코 아니다. 현장에는 혁신학교도 일반학교도 아닌 단지 ‘초중고등학교’가 있을 뿐임
    - 공교육 학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해체 시킨 현재의 수업혁신정책에 그 책임이 있음
  - ‘혁신’ 이란 용어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 필요
    - 교사가 자신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으로 겪는 고통과 힘듦, 어려움과 불편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업 혁신 정책은 혁신의 본래의 의미와도 맞지 않음
    -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수연구중심의 교단 문화 활성화 정책은 어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업 혁신 정책 슬로건 하나만으로 과연 수업혁신은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인가 깊은 성찰이 필요함
    - 수업 혁신은 다양한 참여형 수업 방법들을 우후죽순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바라보는 교사 자신의 인식 혁신을 말함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바람직한 자율성 성찰과 평가권 강화
-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 신장과 평가권 강화
  - 전문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성찰
  - 학력 저하 예방을 위한 책임 있는 수업 운영 교단 조성

○ 전문성을 갖춘 주체적 교단 문화 운영

- 특정 이념과 정책에 좌우되는 교단 문화에서 벗어나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기
- '가치 지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단의 학습 조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사 전문성 기르기

## 5.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지원 강화

###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로 학습 부진 사전 예방
- **개별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길러 낼 수 있는 미래 교실 환경 조성

### ○ 교원 정원 증원

- 교단의 교수 연구 문화 활성화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수석교사정원 확보로 교원 정원 증원
-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연동한 교원 정원 확충

### ○ 학부모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의 이해도 제고

- **교육 주체로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있는 태도 갖기**
- 지역사회와 학교와 교사와 상호 신뢰 구축

### ○ 다문화(외국인 포함), 탈북 학생 학력 관리 지원 체제 구축

- 다문화 학생 학력 신장 지원 정책 시급
- 취약 계층 아동의 원격학습에 필요한 촘촘한 인프라 지원

## 참고문헌

- 강현석(2000). 지식기반사회가 추구하는 지식 개념의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과정학회 2000 교육과정연구 Vol.18 No.1.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 교육부(2016).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
- 김경자(2015). 2015 개정국가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초중학교 편성 운영 중점. 국가교육과정 포럼.
- 김영은(2018).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초학문적 융합 수업 현장 실행 연구(RRI 2018-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유리, 김성식(2019). 신학력관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안 모색. 교육문화연구 25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노상우(2015). 혁신학교의 수업혁신 과정과 과제. 교육종합연구소 2015 교육종합연구 Vol.13 No.1.
- 민부자(2016).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에 대한 토론 자료.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 포럼 자료.
- 박병진(2019). 학교문화 혁신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 박태준(2005).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서근원(2011). 학교혁신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해석적 교육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교육.
- 서근원(2018). 혁신학교는 수업을 혁신하는가?. 한독교육학회 2018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23 No.1.
- 송미나(2016). 2015 역량중심 개정 교육과정. 수업사랑, 16(5)
- 송미나(2018). 고립주의 교사문화와 혁신의 히스테리 협동수업. 수업사랑, 18(13)
- 송미나(2018). 배움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질 개선 방안.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혁신 워크숍 자료집.
- 이은주(2017). 혁신교육의 학력저하 예방을 위한 교육개혁안 연구- 유토리 교육과 혁신교육의 비교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정철희(2019). 듀이의 Transaction 개념에 근거한 ‘배움중심수업’ 비판: 분리와 소외를 넘어서 상황으로서의 전환. 한국교육사상연구회 Vol.33 No.4  
조성민외(2018). 미래 사회 대비 교육제도 개선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RRE 2018-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2019). PISA 2018 결과발표.  
2017-2019 학업성취도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교육부 보도(2019.11.30.)  
온라인 수업 실태. 한국교총, 동아일보 2020.7.20.  
학력격차 해소 및 주요 교육정책 분석 연구(2011). 한국교육개발원.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 이것이 핵심이다(2016). 현장교원 중심포럼. 한국교육  
정책 연구소, 새교육 기획 포럼.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_CN\\_KOR.pdf](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_CN_KOR.pdf) 읽기 수  
학 과학 평균점수 변화 추이





“

여의도연구원은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여연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